

 국토교통부	보도설명자료		
	배포일시	2021. 1. 11.(월) /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교통정책총괄과	담당자	·과장 박지홍, 서기관 김성환, 주무관 한수중 ·☎ (044) 201-3792, 3795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“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말하는가?” 보도 관련 설명 드립니다

< 관련 보도내용 (이데일리 1.10) >

◆ 타다금지법 입법화 등 변화보다는 기득권층을 대변해 온 국토부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말하는 건 맞지 않음

□ 모빌리티 분야는 규제 실증특례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다양*하여, 모빌리티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분야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.

* 승인된 총 40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31건(8%)이 모빌리티 분야 (자율주행서비스, GPS기반 앱미터기, 선결제 택시 플랫폼, 개인용 이동수단, 수요응답형 승합택시,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등)

○ 모빌리티 분야는 자율주행차, 드론, 도심항공교통(UAM), 전통 모빌리티, 개인형 이동수단(PM) 등 분야가 다양하고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어, 별도의 모빌리티 샌드박스를 신설하여 전문성이 있는 국토부에서 특례 승인을 책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.

□ 이에 따라 「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」이 '20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중에 있으며,

○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가 신설될 경우, 기업들은 국토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사업모델 컨설팅, 심사기간 단축,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책임감 있는 검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- 참고로, 모빌리티 샌드박스가 신설되더라도 국토부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기존과 같이 ICT융합 샌드박스(과기부), 산업융합 샌드박스(산업부) 등에 신청하는 방법도 여전히 가능합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교통정책총괄과 김성환 서기관(☎ 044-201-37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